양지와 양능에 대한 대책

양심은 타고났는가?

사람이 모두 천부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양심을 속인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런 뉘앙스를 깔고 말한다. 정말이지 세상에는 남을 속이지 않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양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주희의 지적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짓인 줄 알면서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나쁜 짓인 줄 모르고 한 일은 자신을 속였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곧 양심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고 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옳고 그름을 자연히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고났어도 기질에 막혀 모를 수 있다는 게 전통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과연 양심을 타고났을까?

아무튼 주위를 돌아보면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뉴스거리가 되는 일은 모두 그런 사람들 이야기이다. 보통 사람들이 믿는 상식을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으며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과연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서 보통의 정서나 상황에서 보면 분명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보이는데도 뻔뻔스럽고 천연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양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남을 잘 속이는 일 자체를 능력으로 아는 사람이나 그런 일이 다반사인 직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논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심이란 타고나는 무엇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이나 교육이나 교양에 의하여 형성 또는 계발되는 일종의 도덕적 능력으로 보인다. 흔히 교육받지 못해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좋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간에 비록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양심이라고 할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있느냐? 있다면 왜 발휘하지 못하는가? 선천적으로 있지 않다면 어떻게 양심을 갖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모든 철학과 교육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글은 그런 주제를 다룬다. 그 양심에 해당하는 도덕적 능력을 『맹자』에서 양지(良知) 또는 양능(良能)이라 불렀다. 맹자는 그것을 사람이 누구나 타고난다고 보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에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조선 후기 오원(吳瑗, 1700~1740)의 『월곡집(月谷集)』 속의 「양지양능책(良知良能策)」이란 과거시험 답안지의 내용인데, 그는 1728년 별시 초시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오원은 누구인가?

앞의 이재의 문인을 소개할 때 잠깐 언급했듯이 오원의 본관은 해주(海州), 호는 월곡(月谷), 서울 출신으로 1700년에 도성 내 대사동(大寺洞)에서 출생하였다.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오두인(吳斗寅)이고, 아버지는 오진주(吳晉周)이며, 어머니는 예조판서 김창협(金昌協)의 딸이다. 훗날 숙부인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와 현종의 딸인 명안공주(明安公主)에게 입양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재(李縡)의 문인이 된 일은 아마도 이재 부인의 조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는 그의 고모부였다.

이렇게 봤을 때 그의 인맥이나 학맥의 배경은 노론의 중요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 외할아버

지가 김창협이고 아버지가 현종의 부마이며 스승인 이재와도 인척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의 아들 오재순(吳載純, 1727~1792)에 따르면 오원의 얼굴은 각이 졌고 수염이 성글며, 넓고 평평한 이마에 귓바퀴가 크고 둥글게 솟아 단정하고도 풍성한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또 웃음이 적고 조용하였으며 스스로 뽐내지 않고 행동거지에 무게가 있었다고 한다. 세상에 나온 지 7일 만에 생모를 여의고 할머니 황 씨 부인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기억조차 날 리 없는 생모이지만, 오원은 생모의 부재라는 상실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고 전한다.

172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728년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양지양능책」은 이때 초시에서 장원한 내용이다. 부제학, 승정원 승지,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은 정직·성실·온후(溫厚)하였으며 총명함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고, 문장 또한 깨끗한 절개를 지녔다고 하여 진정한 유신(儒臣)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저서에는 『월곡집』이 있다.

양지·양능과 그 배경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양지와 양능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맹자』에서 비롯한다. 오원은 양지·양능의 학설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언급한다. 곧 맹자가 "양지·양능의 학설을 펴게 된 까닭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고유하고도 가장 가까운 일로는 어린아이가 어버이를 친애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보다 절실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맹자가 간곡하게 이렇게 반복하여 천하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본성을 회복하고 이러한 감정을 발동하게 하려 한 것이니, 이 어찌 맹자가 긴요하게 사람들을 위해 가르쳐 준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려는 논점은 '어린아이가 어버이를 친애하고 형을 공경하는 일'이 바로 양지·양능의 발현이며, 이것이 사람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길로서 맹자가 가르쳐 준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양지·양능이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곧 "이 양지·양능은 이미 하늘이 준 것이고 사람이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 본래 높고 낮은 등급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고 가지런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의 앎과 잘하는 일을 미루어, 알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대상까지 극진히 하면, 성인도 나일 것이고 나도 성인일 것이다. 곧 그 도달하는 경지를 탐구하면 성인이 보통 사람과 어찌 별과 연못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연못과 바다처럼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양지와 양능은 천부적이고 본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인과 보통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 양지·양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개 하늘이 백성을 낼 때 이 인간을 가장 영묘하게 하였으니,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것이 있고,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잘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본연의 착한 마음이니 애초부터 그것을 얻지 못한 이는 한 사람도 없다. 어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더 많아지거나 어리석고 못났다고 하여 더 줄어드는 일도 없다. 그래서 둥근 머리와 네모진 발을 지닌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든 자들은 어릴 적에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음이 없고, 점점 자라게 되면 그 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 마음은 뭉게뭉게 일어나 어디를 가든 있게 되니, 당초에 어찌 비교하고 헤아리는 마음과 이끌고 권하는 노력을 빌리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이 말에는 더욱 양지·양능이 선천적 도덕의 실천 능력 곧 도덕성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태어남을 말하였다. 특히 강조한 부분을 보면 선험적 능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을 달리 '본연의 착한 마음'이라고 말하여 본심 또는 오늘날 말하는 양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 착한 마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맹자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와 함께 '어릴 적에

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음이 없고, 점점 자라게 되면 그 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성리학의 타고난 본성과 연결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양지의 지(知) 자와 양능의 능(能) 자는 사람의 심리나 행동이 촉발된 이후에 쓸 수 있는 말인데 아직 발동하지 않는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양(良)이란 글자는 본성이 되고, 지(知) 자와 능(能) 자는 본성이 발현된 정(情)이 된다. 그래서 시험관이 이 문제를 질문한 모양이다. 오원의 답안을 보면 그렇다.

그는 이에 대해서 "'지'라고 하고 '능'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정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맹자의 의도는 아마도 이러한 '지'가 있고 이러한 '능'이 있다고 한 것일 뿐, 드러내서 사용하는 측면에서 한 말은 아닌데, 그것을 일러 곧 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진실로 본래 선한 마음으로 양지·양능을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이것을 성리학의 구도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본래 선한 마음으로써 양심으로 보고자 한 말이다.

양심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과 그 대책

누구나 양지·양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누구나 잘 발휘되지 못하는 원인을 오원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 달리 말하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모든 사람의 본래 성품이 선하다면, 현실적으로 선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해야 하는 맥락과 같다.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하느님이 좋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의 의도와 달리 현실 부조리의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과 비슷하다.

그는 이에 대해서 "행하되 드러내지 못하고 익히되 살피지 못하여, 종신토록 말미암으면서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한없이 많아 세상이 온통 그러하다. 사람치고 누군들 양지·양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 맹자부터 이미 이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였는데, 하물며 세상이 더욱 나빠지고 인심이 더욱 타락하여 성학(聖學)의 밝지 못함이 이때와 같은 적이 없으니, 사람이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손상되는 일 없이 동물과 다를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라고 한탄하였다.

그에 대한 철학적 설명은 성리학의 논리에 의존한다. 곧 "어둡고 밝고 순수하고 잡박함은 그 타고난 기질이 같지 않고, 이목구비가 그 욕망에 쉽게 움직인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살피고 일을 하는 사이에서 본래의 선한 마음이 능히 확충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는 마치 샘이 아직 솟아나기도 전에 이미 그 구멍을 막아버리고, 마치 불이 아직 타오르기 전에 그것을 끄는 일과 같으니, 성대하게 곧장 이루어지지 않음이 참으로 괴이하지도 않다."라고 하여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었다. 하나는 타고난 기질이요,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기 때문이란다. 전자에 대해서는 "어질고 지혜 있는 자는 이 이치를 알아 미루어 넓히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여 차꼬가 채워져 상실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면 인식 능력이 탁월해도 양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심을 발휘할까?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커다란 숙제이다. 아무리 지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과도한 욕망 앞에서는 양심은 나약하기 그지없다. 바로 여기서 오원은 "맹자가 양지·양능의 설을 펴게 된 까닭은 고유의 착한 마음을 진작시켜 극진한 공부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 마음 씀이 지극히 간절하고 그 공효가 지극히 크다. 하지만 어떤 것이 양지·양능이어서 확충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외부의 유혹과 물욕이어서 극복하고 제거해 나가야 하는지를 관찰하고, 두 가지 사이에서 섞이지 않게 살피면서

본심의 선을 알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직 널리 배우고 간절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는 공부에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곧 학문사변(『중용』의 博學·審問·愼思·明辯)의 공부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비록 선천적으로 양심을 타고났어도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양명학의 양지설 비판

왕수인(王守仁, 1472~1528 추정)이 창시한 양명학의 종지 가운데 하나는 양지설인데, 그 양지를 바로 『맹자』에서 가져왔다. 그도 양지를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데 동의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여 성리학자들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둘 사이 근본적 차이가 무엇일까? 오원은 여기서 학문의 영역별로 나누어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공부 방법에서 육왕학(陸王學)을 싸잡아 비판하였다. 그래서 "수고롭게 노력하는 것을 싫어하고 간편함에 안주하려던 사람이 돈오(頓悟)의 학문을 창도하여 스스로 불교의 남은 가르침에 빠졌고, 명대의 왕수인에 이르러서는 미쳐 날뛰는 일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여 학문 자체를 비판하고, 나아가 또 "맹자의 양지·양능 한마디 말씀을 앗아가서, 어린아이가 애경(愛敬)을 알도록 한다면 학문 사변의 공부에 힘쓰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고 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맹자의 '자기 본성을 알면 하늘의 이치를 안다.'라는 가르침을 무너뜨렸으니 이는 성인의 말을 빌려 후학들을 혼미하게 하고 그릇되게 한 것이다. 천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맹자를 속였다. 이 어찌 우리 도(道)의 죄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양명학이 학문사변의 공부에 힘쓰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의 양명학 비판은 공부 방법에 향해 있다.

철학사적 의의

서두의 '양심은 타고났는가?'에 대한 대답은 맹자·성리학·양명학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비록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좋지 못한 일에 그럴듯한 명분을 도입하고 합리화하는 자체가 타고난 양심이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음이 언제나 상식과 같을 수도 없어서 양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더구나 문화가 다르면 상식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양심에서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말 최한기는 어릴 때의 부모나 형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애경(愛敬)으로 표출된다고 하여, 양지의 발현이 경험 이후라고 한다. 결국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의지 그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양심의 내용이란 결국 문화의 산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오원이 말하는 학문사변은 양심을 키우는 큰 역할을 하겠다.